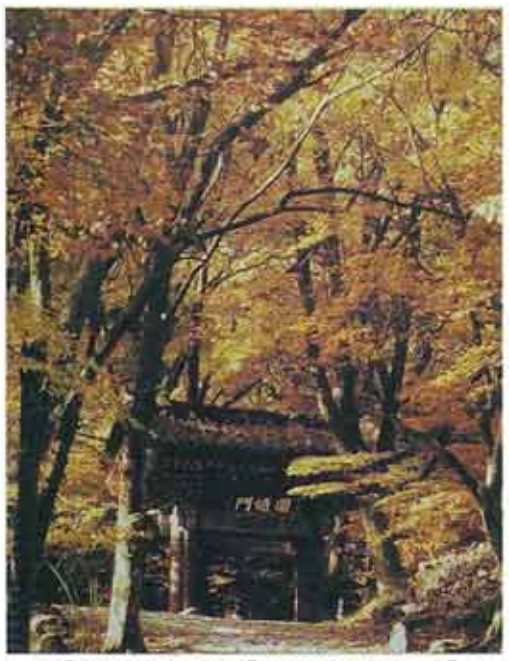
시방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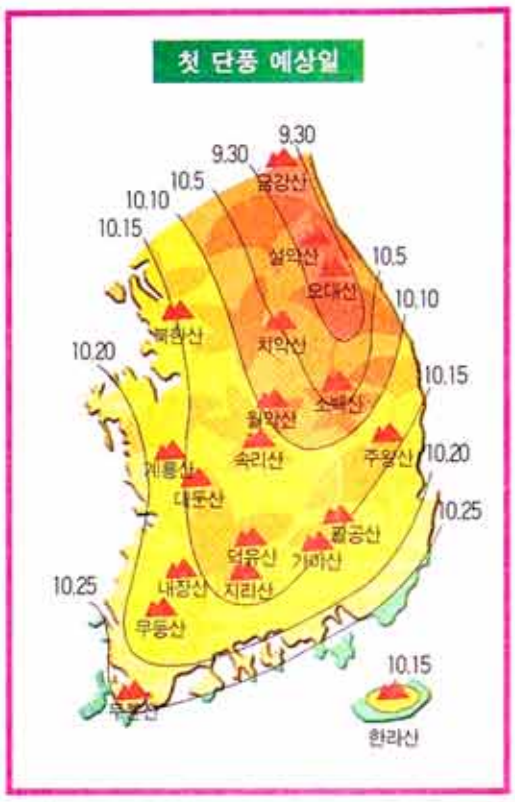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전 국 (080)064-1300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가을산사로 떠나는 기차여행



◇울창한 적송과 노란 가을빛 꽃잎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구룡사 원통문. 이 문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을산사의 정취에 감싸이게 된다.

◇기차를 타고 떠나는 단풍여행. 정취와 함께 출발과 도착시각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어 여행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곱게 물든 단풍과 고승 대덕들의 부도가 절묘한 조화를 이뤄 더욱더 은은한 옛 향기가 풍겨나는 내장사 부도전.

◇단풍관광 열차시간표

출발역	출발시각(요일)	사찰 · 관광지
서울역	07:10(매주 일요일)	마이산 탑사, 금당사, 민속공예품전시장
	07:35(월~토)	마이산 탑사, 금당사, 민속공예품전시장
	07:10(매주 일요일)	전주 송광사, 춘향묘, 광한루
	06:40(매주 일요일)	무량사, 성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09:55(월 · 수 · 금)	무량사, 석탄박물관, 대천비닷가
	23:30(토, 무박2일)	경주 불국사, 석굴암, 보문단지
	21:50(토, 무박2일)	여수 향일암, 순천 송광사
	21:55(토, 무박2일)	화엄사, 쌍계사, 지리산 노고단
	07:50(토 · 일)	화엄사, 지리산 단풍관광
	08:20(토 · 일)	내장사, 내장산 단풍관광
	매시간마다	백양사
	30분 간격	대구 동화사, 팔공산 갓바위
청량리	21:50(금~일, 2박3일)	설악산, 낙산사, 신흥사
	21:40(토, 무박2일)	대전사, 주왕산, 영덕 강구항
	21:50(수 · 금, 무박2일)	동명낙가사, 정동진 해돋이
	매시간마다	치악산, 구룡사, 상원사

철도청, 단풍철 테마열차 운행

세속의 삶 잠시 접고 단풍물든 산과 절로 본래면목 찾으러 가자

자, 떠나자 기차를 타고 가을 산사로.

곱게물든 단풍길을 따라 고즈넉한 산사에 이르면 경제불황이 주는 삶의 고통을 잊고 자신의 내면 깊이 움츠리고 있는 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차로 떠나는 여행은 출발과 도착시각이 정확해 여행 계획을 미리 꼼꼼하게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길위에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달리는 기차속에서 가족끼리 마주앉아 그동안 미뤄놨던 얘기를 도란도란 정겹게 나눌 수 있기에 더욱 좋은 기차여행. 이런 추세에 발맞춰 철도청에서 단풍 관광열차, 백제 문화탐방열차, 해돋이 열차 등 사찰과 자연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10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철도청이 선보인 단풍관광 상품은 모두 다섯개. 또 관광 상품화된 열차가 아니더라도 행선지를 미리 정해 두고 알맞는 기차편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대표적인 곳이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운행되는 지리산 단풍 열차다. 이 열차는 서울역에서 오전 7시50분에 출발해 구례구역에 낮 12시54분에 도착한다. 기차에서 내려 역 앞에 10분 간격으로 대기하고 있는 화엄사행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우리나라 화엄사상의 으뜸 도량인 화엄사를 만나게 된다. 국보급 보물이 많은 이 사찰에서 눈여겨 봐야될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등인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과 네 마리의 사자가 연화대를 받치고 있는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 신비한 전설과 함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각황전(국보 제67호) 등이다. 화엄사를 에워싼 숲이 가을 빛으로 물들면 절은 더욱 우아하면서도 고풍스런 분위기에 감싸인다.

단풍하면 제일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 내리는 내장산 단풍열차도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운행된다. 서울역에서 오전 8시20분에 출발한 기차는 오전11시50분 정읍역에 나그네를 내려 놓는다. 이때부터 오후6시 다시 서울행 열차가 정읍역에 당도하는 시각까지 내장사 단풍관광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백제때 영은조사가 창건했다는 내장사 단풍관광의 하일라이트는 일주문에서 출발해 벽련암과 원적암을 지나 내장사로 돌아오는 코스. 백제문화유산인 은선리 삼층석탑과 고려시대 석불 입상 등도 둘러 볼 만하다.

2박3일동안의 여정을 품고 떠나는 설악산 단풍관광은 10월 초순부터 시작된다. 가을 단풍은 북에서 남으로, 산머리에서 산아래로 물들기 때문에 설악산은 남부지방의 산들에 비해 빨리 단풍이 물든다. 청량리역에서 밤9시50분에 떠난 기차는 다음날 새벽 4시57분 강릉역에 당도한다. 여기서 양양 낙산사까지는 버스로 1시간 30분거리. 의상대사가 세운 최초의 화엄도량인 낙산사에 들어서면 시원스레 펼쳐진 동해바다와 함께 16m 높이의 해수관음상이 눈에 들어온다. 해안 절벽에 위치한 홍련암, 낙산사의 주불전인 원통보전과 칠층석탑(보물 제499호) 등이 소박한 담장에 둘러싸인채 순례자를 맞는다.

계절에 관계없이 매주 일요일마다 떠나는 문화 탐방 열차도 가을 불심을 살찌우기에 안성마춤. 서울역에서 오전 6시40분에 출발한 백제 문화탐방 열차는 오전9시32분 대천역에 멈춘다. 이때부터 향토사학자인 김인권(백제문화원 사무국장)씨의 안내로 능산리고분군을 비롯해 국립부여박물관, 부소산성 등을 답사하게 된다. 이어 백제양식을 계승한 무량사 5층석탑(보물 제185호)과 극락전(보물 제356호) 등이 있는 무량사 앞에 서면 백제불교의 장중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석조연꽃대좌와 3기의 3층석탑이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9산선문중 가장 번창한 일문이었던 성주사지도 만날 수 있다. 또 매주 일요일 오전7시10분 서울역을 출발, 오전10시38분 동산역에서 하차한 뒤 버스로 이동해 마이산탑사와 금당사, 민속공예품전시장 등을 둘러 보고 돌아오는 전주지구 관광열차도 있다.

매주 수 · 금요일 두 번 운행하는 정동진 해돋이 열차도 사찰여행을 할 수 있다. 밤9시50분 청량리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5시30분 정동진역에 도착해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등명낙가사 대웅전에 서면 장엄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 사찰에서 영산전 안에 있는 청자로 만든 5백나한상은 꼭 친견 해봐야 한다. 이외에도 서울역에서 수시로 떠나는 호남선을 타고 백양사역에 내려 버스를 이용하면 깎아지른 듯한 학바위를 배경으로 단아하게 앉아 있는 대웅전과 극락보전, 고승 대덕들의 부도들이 옛 향기를 은은히 풍겨주는 부도전 등으로 유명한 백양사를 찾아갈 수 있다. 내장사보다 이곳의 가을 풍광이 뛰어나다고 먼저 방문한 이들이 귀띔할 정도로 아름답다.

청량리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원주역에 내리면 20분 간격으로 치악산 구룡사행 버스가 떠난다. 역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구룡사 입구에 다다르면 아홉마리용과 거북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구룡교가 반긴다. 참선 설화를 음미하면서 경내로 들어서는 깊은 맑은 계곡 물소리와 울긋불긋하게 채색된 일새들로 장관을 이룬다. 최근 새로 조성한 삼층석탑과 옛 건물인 대웅전이 신 · 구의 조화를 이루며 절마당을 경건한 분위기로 이끌고 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문양으로 널리 사용…청정함 상징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⑯ 연화문

◇마곡사 대웅보전 천장. 1651년.

연꽃은 더러운 진흙속에서 자람에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까닭에 '청정한 불성' '보리심'을 상징한다. 꽃 가운데서도 '군자'로 표현되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랑받는 연꽃은 문양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꽃이다. 사찰에서는 연화대, 광배, 탑집, 기와, 그리고 단청에 대부분 연화문이 쓰인다. 또한 법당의 천장도 연화문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여기가 연화장세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왼쪽 그림은 마곡사 대웅보전(보물 801호)의 천장이다. 대들보에 의해 자연스레 3칸으로 나누어지고 칸칸으로 지른 우물반자속에 다시 무늬줄대를 둘린 소란을 꾸며서 그 안에 연화무늬를 가득 베풀었다. 오른쪽 그림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성모자' 그림에 나오는 성당의 천장이다. 반원형의 대리석 지붕을 우물 정(井)자로 나누고 그안에 연꽃무늬 조각을 나란히 배치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作 '성모자(부분)', 1472년. 브레라미술관 소장.